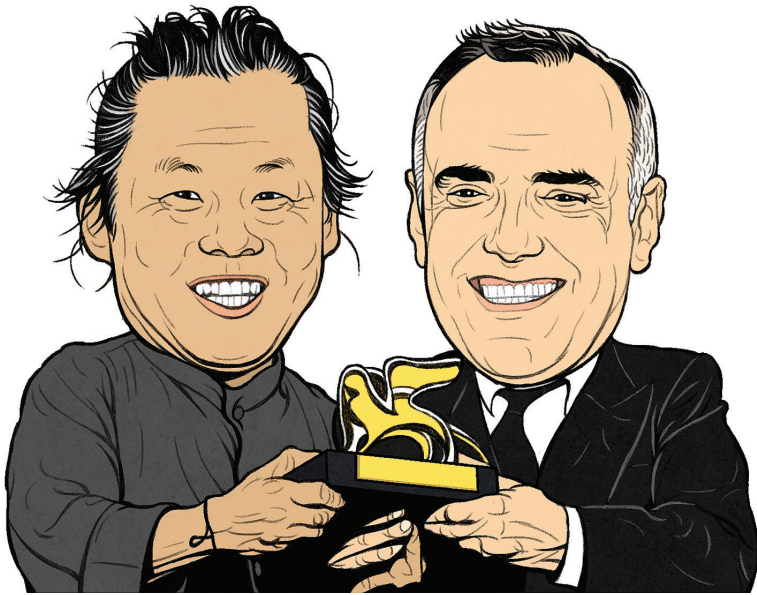


# 당신을 키운 위대한 조력자

스티브 잡스와 조너선 아이브, 워런 버핏과 찰리 멩거. 성공한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천군만마 부럽지 않은 든든한 '조력자'가 그림자처럼 곁에 있다는 것이다.

에디터 심민아(withsma@noblesse.com) 참고 서적 <싸우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게 함께 일하는 기술> 일러스트 장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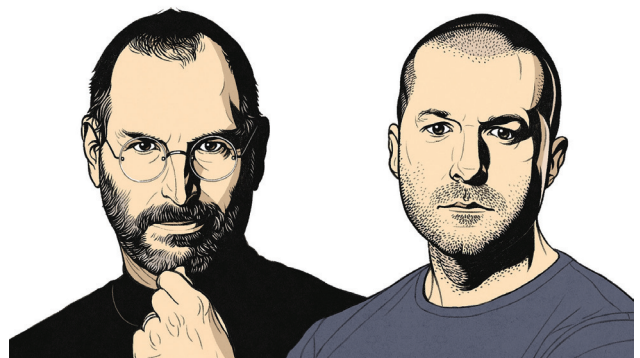
지난 9월 제69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영화 <피에타>가 황금사자상 수상의 쾌거를 이뤄 세계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김기덕 감독은 수상 소감을 밝히는 인터뷰에서 파란 눈의 한 남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바로 알베르토 바르베라(Alberto Barbera) 베니스 영화제 집행위원장.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사람이 무슨 사이일까 사뭇 궁금해졌다. 바르베라 집행위원장과 그의 인연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섬>을 세계 무대에 처음 소개한 인물로, 토리노 영화 박물관 관장 시절부터 김기덕 특별전을 개최할 정도로 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한국 영화가 7년 만에 베니스 영화제의 레드 카펫을 밟게 된 결정적 이유로 그들의 각별한 인연을 꼽는 이들이 많다. 무명에 가깝던 김기덕 감독이 세계 무대에 발을 디디고, 그의 영화가 빛을 보게 된 데에는 뛰어난 작품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뒤에 숨은 조력자 바르베라의 공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공과 조력자, 이 둘은 과연 어떤 관계로 이어져 있을까?

## 박수 받아 마땅한 조력자들이어

애플을 이끈 위대한 리더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타계하자 그의 파트너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중 최근 애플의 실세로 떠오른 조너선 아이브(Jonathan Ive) 부사장은 잡스의 자서전에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된 인물이다. 잡스가 복귀한 1997년, 30세의 젊은 나이에 부사장으로 발탁된 아이브는

애플의 혁신적 디자인을 잡스와 함께 만들어냈다. 평소 그를 눈여겨본 잡스는 자신의 디자인을 들고 아이브가 이끄는 디자인팀을 자주 찾아가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둘이 파트너가 된 지 1년 만에 아이맥이 출시되었고, 제품은 히트를 쳤다. 이후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대표 상품을 연이어 내놓았다. 애플 직원들이 잡스와 아이브를 일컬어 '자이브(Jive=Jobs+Ive)'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은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잡스는 "회사 안에 나의 정신적 파트너가 있다면 바로 조니(조너선 아이브의 애칭)"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신뢰했다. 스티브 잡스가 IT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과 뛰어난 안목을 갖췄다면 조너선 아이브는 잡스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형상화하는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아이브 외에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현 CEO 팀 쿡도 잡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인물이다. 애플의 히트 상품은 잡스 혼자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런 조력자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다.

스포츠 스타의 경우 조력자의 도움이 상당하다. 런던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에게는 비밀 병기 같은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 인터뷰에서도 종종 거론한 멘털 코치 조수경 박사다. 올림픽 노메달리스트임에도 그녀가 주목받는 이유는 올림픽 사상 첫 결선 진출인 데다 심리적 부담감을 극복하고 '완벽 연기'를 펼쳤



기 때문일 것이다. 런던 올림픽 당시 곤봉 종목에서 손연재 선수의 슈즈가 벗겨지고 곤봉을 한 차례 놓친 안타까운 장면을 기억하는가? 그러나 그녀는 위기에 강했다. 침착하다 못해 아무렇지 않은 듯 생글생글 웃으며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마친 열아홉 살 당찬 소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적이었다. 그 뒤에 이어진 리본 경기에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다. 과연 손연재 선수는 어떻게 경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을 다잡았을까? 바로 지난 결과를 잊고 다음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곁에서 마음을 다독여준 조력자 조수경 박사의 덕이 크다.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아쉽게 단체전 메달을 놓쳐 눈물을 쏟았지만 손연재 선수는 이튿날 개인전에서 당당히 동메달을 따냈다. 알고 보니 조수경 박사와 전화 통화를 해 컨디션 조절에 큰 도움을 받은 것. 조수경 박사는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 소피아 월드컵, 런던 올림픽까지 지난 2년간 지근거리에서 손연재 선수를 조력해왔다. 손연재 선수가 심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상담을 통해 안정을 되찾아주고, 시합 전 집중력을 높여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도 왔다. 런던 올림픽에서 세계 랭킹 5위의 성적을 거둔 손연재 선수가 그토록 당당하게 연기를 펼칠 수 있었던 비결은 '올림픽의 목표는 메달이 아니라 행복한 선수가 되는 것'이라는 조수경 박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이었다.

### 조력자와 파트너십을 맺어라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조력자를 만난 것은 아니다. 일본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안도 미키는 니콜라이 모로조프 코치와 2009년 동거설에 휩싸여 화제를 모았다.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 참가할 계획이던 안도 미키는 지난 4월 코치와 결별하며 대회 준비에도 차질을 빚었다. 지난 시즌을 통째로 쓴 안도는 모로조프 코치와 재계약에 실패한 후 새로운 코치를 구하지 못했다. 안도 미키는 올 시즌 피겨 그랑프리 시리즈에도 불참을 선언, '2013년 전일본선수권대회가 선수로서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폭탄 발언까지 했다. 2011년 모스크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잘나가던 일본의 간판 피겨 선수가 조력자이자 연인인 코치와 결별한 후 선수 생활까지 불투명해졌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조력자와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심운섭 컨설턴트는 "조력자는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다.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상승 효과를 내는 '파트너십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다. 20세기 최고의 기업인으로 추앙받는 잭 웰치(Jack Welch) 제너럴일렉트릭(GE) 전 회장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의 뒤에는 성공의 일등공신인 로잔 바도스키(Rosanne Badowski)라는 비서가 있었다. 하루 10건의 미팅, 500건의 이메일 답장, 주 3일의 동반 해외 출장을 척척 해낸 바도스키를 가리켜 잭 웰치는 '내 오른팔이자 왼팔'이라고 치켜세웠다"고 말한다. 동반자적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한 바도스키는 14년간 잭 웰치를 헌신적으로 보좌한 뛰어난 조력자였다. 세계적 투자가 워런 버핏(Warren Buffett) 회장과 찰리 멩거(Charlie Munger) 부회장이 성공적 파트너십을 통해 막강한 파워를 발휘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힌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인자 워런 버핏 뒤에서 묵묵히 그림자 역할을 수행한 찰리 멩거는 투자의 귀

재 워런 버핏을 만든 주인공으로 평가받고 있다. 버핏은 중요한 투자를 결정할 때 멩거에게 의견을 묻는 것으로 유명하다. 찰리 멩거는 '논리적이 아니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고 직언을 하는 등 음부즈맨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상대방을 신뢰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이상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렇듯 성공한 이들에게는 일종의 법칙처럼 조력자라는 공식이 따라붙는다. 조력자와 궁합이 잘 맞을 경우 작은 기업도 살리고 서로 윈윈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만, 조력자를 잘못 만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조력자의 도움을 원하는가? 빌 게이츠는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다. 시험 볼 때만 빼고는 늘 누군가를 찾아냈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힘보다 두 사람이 만나 발휘하는 힘이 훨씬 강력하고, 두 힘이 합쳐질 때 그 효과는 둘 이상의 힘으로 나타난다. 당신도 성공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위대한 조력자'를 만나라. 그리고 "훌륭한 파트너를 얻고 싶으면 먼저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찰리 멩거의 말처럼, 당신이 조력자에게 믿음을 주는 파트너인지 스스로 반문해보기 바란다. ◆ 도움말 심운섭컨설턴트 & 유어파트너 대표

